

재미... 감동... 웃으면서 불교공부

불교우화·고승일화·설화 담은 책 '인기'

때로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한마디가 몇 권의 책보다 더 큰 교훈을 줄 때가 있다. 최근들어 <자타카> (백유경) 등 불교우화나 고승들의 일화를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많이 읽히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배움을 잡고 웃는 사이에 우스개소리 뒤에 숨겨진 진주와도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이같은 불서들은 재미있는 우화나 설화, 일화 등을 통해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한다. 그래서 불교에 생소한 일반인이나 불교 입문자, 청소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불교입

문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소재가 되는 것이 <자타카>다. 본생담(本生譚) 또는 본생경(本生經)으로 번역되는 이 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전생에서 어떠한 수행을 쌓았는가를 여러가지 이야기 형태로 엮은 세계최초의 우화집. 기원전 4~2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타카>는 불전문학의 백미로서 540여가지나 되는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가득차 있어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최근에 나온 것만 해도 서화전씨의 <자타카>(문학수필)와 나스님이 불경 가운데서 우화만을 가려뽑아 만든 <백유경>은 이솝우화와는 달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 더욱 친밀감있게 우리의 막힌 귀와 닫힌 마음을 열어준다. 김성규씨의

<부처가 되는 백가지 방법>(큰산), 남교회씨의 <만화 백유경>(불교만화사), 향봉스님의 <마음의 샘터 지혜의 샘터 백유경>(말일) 등이 눈길을 끈다. 부처님과 제자들, 수많은 선사들이 비유를 통해 들려준 삼도의 지혜를 이야기 형식으로 담은 불서는 이밖에도 많다. 16나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초심자 불교입문서 역할 '톡톡'

'자타카' 최초 우화집...이솝우화등 영향

인도미술사

벤지민 로울랜드 지음

인도 불교미술 변천과정 상세히 분석

서울대 이주형교수(고고미술사학과)가 번역 출간한 벤지민 로울랜드의 <인도미술사>(예경)는 우리나라 고대 불교미술과 상당한 관련을 지닌 인도 불교미술의 변천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서다. 간다라 미술과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에 광복할 만한 업적을 남긴 저자는 미국의 인도미술사 강좌의 교과서로 쓰여왔다.



인도미술사의 대표적인 개성으로 자리를 굳혀 왔으며 오랫동안 미국 대학에서 인도미술사 강좌의 교과서로 쓰였다.

아직 고고학적인 설명이나 관념적인 서술에 머물러 있던 1953년 당시, 미술품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명쾌한 설명을 담은 이 책은 출간 즉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30여년간 판을 거듭하면서 영어로 쓰여진

이 책의 대표적 개성으로 자리를 굳혀 왔으며 오랫동안 미국 대학에서 인도미술사 강좌의 교과서로 쓰였다.

오는 8월경 베른협약 가입에 앞서 정부가 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개정 저작권법'이 7월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에따라 의회적이나 출판물의 경우 저작권법 7월 발효 후 57년이상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이 전면 소급보호에 따라 외국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학술서적과 외국문학작품 출판의 타격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세계저작권협

약(LCC) 가입시점인 87년 이전에 발행된 외국저작물에는 로열티를 주지 않고 번역 출판했지만 7월부터는 57년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미 번역된 작품은 99년 말까지 로열티 지급없이 사용한다는 '경과조치'로 보호된다. 1886년 채택된 베른협약의 공식명칭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불교미술서 농축된 시대이념 엿보”

'한국불교미술사' 펴낸 김영주씨

“우리 불교미술의 위대한 예술성은 진리의 깨달음으로 법열(法悅)에 차서 커다랗게 터져 나오는 웃음을 터뜨릴 듯한 그런 예감을 주는, 오묘한 진율의 정신세계를 창조해 내 데 있습니다.”

최근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까지 한국 불교미술의 흐름을 정리한 <한국 불교미술사>(출판사)를 펴낸 미술사학자 김영주(50·서강대 강사)씨의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연구는 불교교리와 생소한 전문용어로 일반인들이 읽기에 다소 어

려운 분야를 가급적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김씨는 “불교미술은 조형미와 회화미를 추구한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당대의 불교 교리와 신앙, 즉 시대이념이 농축된 고도의 사상체계”라고 설명했다.

“고대미술의 특징은 한마디로 활달함과 자신감입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을 보세요. 마치 신성한 기운이 서린 육체를 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완벽한 조형미에 사상성이 겹치면서 일종의 초월적 경지에 도달했지요.”

寺誌 '갯바위 부처님' '보문사' 발간

사찰문화연구원

지금까지 강원도권을 비롯해 서울권, 경기권 1, 2권 등 모두 다섯권의 '전통사찰총서'를 출간한 사찰문화연구원(웅주사)은 <93년 발간>에 이어 단행본 사지(寺誌)인 <갯바위 부처님>과 <보문사>를 동시에 발간했다. 선본사 사지인 <갯바위 부처님>은 우리나라 약사신앙의 유래와 그 참뜻, 팔공산의 명찰 선본사와 갯바위부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팔공산

관봉 아래 자리한 갯바위부처님은 약사여래로서, 신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영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문사>는 보문사의 역사를 비롯, 관음·나한영험설화, 관음신앙의 참뜻, 보문사의 성모문화재 등을 알기 쉽게 엮었다. 보문사에는 관음성지임을 상징하는 마애관음좌상이 서해바다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에 위치해 있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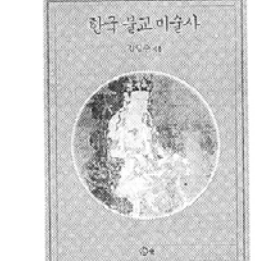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정	샘터
2	기도	일타	표리각
3	영원한 자유의 길	심철	장경각
4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냄
5	전생여행	김영우	정신세계사
6	금강경강의	무비	불광
7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화
8	능엄경주해	윤허	동국역경원
9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	법륜	모색
10	환원 털고 같이 가세	서암	정토

구입문의: (02)737-0695



그가 중점적으로 다룬 작품은 통일신라의 불국사와 석굴암, 고려시대 불화와 청자 등. “우리 것이 더 아름답다”는 확신으로 불교의 수용과 이념변화에 따른 미술의 변천을 당시 사회상과 아우르며 친절하게 안내한다. 중국 일본의 불교미술을 포함, 1백30장에 이르는 원색사진도 돋보인다.



김씨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외할아버지 시인 김지하씨의 부인, 연세대 민영규교수와 동국대총장을 지낸 고 조영기박사로부터 불교학을 사사한 김씨는 저서로 <조선시대 불화연구>(지식산업사, 1986)와 <신기론(神氣論)>으로 본 한국 미술사(나남, 1992)를 낸 바 있다.

◇불교우화·일화 등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와 감동을 함께 지닌 불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불교동화책인 선용씨의 <나한이야기>(현암사), 불교의 진리가 담긴 핵심적인 설화를 모은 김원각씨의 <숫가락은 밤맛을 모른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책만드는집)도 돋보이는 책이다.

달마대사로부터 근대 고승에 이르는 스님들의 일화를 다룬 불서로는 홍희씨의 <선종이야기>(동문선), 박영규씨의 <달마에서 경허까지>(정신세계사), 홍여운씨의 <강을 건넌다면 나뭇배는 버리게나>(고려문화사), 진동일씨의 <나는 노새의 동이로다>(백양) 등이 최근에 나왔다.

이 책도 여느 석가전과 마찬가지로 탄생과 출가,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승단의 구성, 설법 등으로 짜여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법의 해석이었다. 법이란 바로 질서이며, 대자연은 이 법에 의해 움직이지만 조금도 자의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불교는 이런 점에서 있어서 아리송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집아(執我)의 잘못을 부

른 점이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기존의 석가전에 나오는 이름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세의 말(방언) 그대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인 다가하시의 48세라는 길지 않은 생애에 많은 이적을 보였고, 현생에서 배운 적도 없는 고대 인도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이집트어까지 구사했다고 한다. 또 그의 인연을 맺었던 김해석 시인에 따르면 다가하시의 그의 가르침이 조직화되어 타락하는 것을 매우 경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교교의의 대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독창적이고 명쾌하게 부처님의 출가·성도와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인간 석가>는 필자의 불교 이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다음으로는 연생(緣生)의 순환과 진보, 그리고 심령(心靈)의 개방성을 논리적

명사추천

‘인간 석가’

다가하시 신지(高橋信次)의 <인간 석가>를 알게 된 것은 이 책을 번역한 진선한의원장 김해석시인을 통해서였다. 이미 지난 92년에 번역 출간된 <마음의 발견>과 <마음의 원점>을 통해 저자 특유의 독창적이고 진솔한 불교관을 접했던 터라 주저없이 눈길을 쫓게 되었다.

이 책도 여느 석가전과 마찬가지로 탄생과 출가,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승단의 구성, 설법 등으로 짜여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법의 해석이었다. 법이란 바로 질서이며, 대자연은 이 법에 의해 움직이지만 조금도 자의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불교는 이런 점에서 있어서 아리송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집아(執我)의 잘못을 부



김진식 (수필가)

중도관 설득력 있는 이론제시 깨달음의 단계 명확하게 서술

각사키면서 근원적인 존재의 실체를 명확히 하지않는 무아설(無我說)은 불교학자들의 지식과 뜻이 가미되어 그렇게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곧 무아(無我)는 없는 것으로만 해석하기 쉬우나 질서의 바탕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모든 법의 축(軸)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들도 이러한 자연이 가르치는 중도의 정신을 살려나간다면 조화와 질서의 밝은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의 바탕에 깔고 있다. 이점이 일반적인 불교이론과는 차이가 있지만 매우 실제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연생(緣生)의 순환과 진보, 그리고 심령(心靈)의 개방성을 논리적

녹수청산으로 오십시오.

▶ 녹수 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엄선된 재료와 정성어린 손길에서 깊은 맛이 우려나기 때문입니다.

▶ 녹수 청산은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 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단체예약 모임은 저녁 10:30까지 가능하며 별도의 서비스 혜택이 있습니다)

다원 녹수청산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중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